



建議書 無用論 (?)

최 승 덕
(본회 홍보부 대리)

우리는 지금 민주화의 열기가 고조되어 가는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그동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며, 억압되었던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일부는 객관적인 타당성이 결여된 것도 있지만, 대부분 자신들의 권리를 찾으려는 너무나도 당연한 주장들이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과격한 행동(이름하여 실력행사)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이와같은 행동이 발생하게 된 이유는 말로써 해결되지 않을때, 또는 순리적인 과정으로는 먹혀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지금까지 이어져 온 비정상적인 행태에 익숙해져 있는 서글픈 현상임에 틀림이 없다. 더욱 화나게 하는 것은 현재의(민주화가 진행되어 지려는) 시점에서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부류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이다.

순리를 거역하면, 그만큼 댓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다. 어떤 일이든지 순리에 입각해서 문제를 풀어야 하며, 순리에 의해

서만 문제가 해결되어야 정상적인 사회라 할 수 있다.

요즈음 일각에서는 건의서(각종 의견발의서)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다. 아무리 좋은 의견을 개진하더라도 순리적으로 건의해서는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건의한 측에 혼란만 야기시키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느니, “적절한 시기에 반영하겠다”느니 하는 불확실한 변명만 남발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아무런 반응도 나타나지 않아 어떻게 처리되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건의서 무용론을 외치는 측의 주장이 상당히 설득력있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그만큼 많은 실증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전에 어떤 생산자측에서는 그동안 수많은 건의를 하였지만(비록 눈가림식 건의도 가끔은 있었지만), 제대로 반영된 것도 없고 오히려 바라는 바와 배치되는 정책결정을 하려하자, 순리적으로는 문제가 풀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실력행사에 돌입하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

그러자, 그동안 수수방관 내지는 안일한 대책을 가지고 대처하던 관계기관에서는 생산자측이 주장했던 의견을 거의 전부 들어주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그렇게 비합리적이라고 매도되던 의견이 어느 날 갑자기 합리적인 안(案)으로 정책에 반영된 다니 과연 실력행사의 위력이 대단한 것 같다. 똑같은 안(案)이라도 건의서나 의견서로서는 반영이 안되고,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만 반영된 다니 안타깝기 짝이 없는 일이다.

과연, 실력행사가 그렇게 효과적인 것인지!

옛 말에 문(文)은 무(武)보다 강하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요즈음은 무(武)가 더 강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순리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만 문제가 해결된다면 이 나라는 실력행사의 장(場)이 될 것이며, 그야말로 무법천지가 될 것이 확실하다.

이와같은 위험한 사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계층의 지혜와 겸허가 요구된다.

좀 더 슬기롭게 생각하고, 좀 더 깊게 사고(思考)하여 좋은 의견은 과감히 수렴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하겠다. 순리적인 문제해결이 어려우면 물리적인 힘이 터져 나오게 되며, 그때의 피해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며 쌍방이 입게 될 것이다.

용수철도 강하게 눌러지던 것이 더 높이 튀어 오르는 것과 같이,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눈가림 식으로 덮어 놓으면 더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손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 막아야 되는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때가서의 책임소재는 아무 필요가 없게 될 것이며,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사후 약방문(死後藥方文) 격이 될 것이다.

과감한 수용, 순리적인 문제접근, 산업인의 주체적 지위보장, 심사숙고한 정책 결정 등이

이루어지면 모든 문제의 해결은 그리 어렵지 않으리라 확신한다.

꼭 시끄럽고 요란해야만 신경쓰는 그런 사고방식은 이 시대의 요구에 맞지 않는 사고이다. 순리적으로 문제해결이 안되고 물리적인 힘에 의해 일이 해결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정상적인 채널과 경로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비정상적인 행태로 흐른다면 그것은 점점 더 바람직하지 못한 길로 빠져들게 된다.

어떤 사회에서도 온건론이 우세하여 강경론을 압도할 때만이 안정된 사회를 이루게 되며, 강경론이 득세하면 점점 더 경직된 현상으로 빠져들게 되어 불안한 정세를 유지하게 된다.

바람직한 의견(案)은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 정책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나 요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가 이루어져야 한다.

「건의서 유용론」이 모든 이의 마음속에서 의구심을 나타내지 않을때 과격한 실력행사도 사라질 것이며, 건의서 무용론도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합리적인 의견이 순리적인 과정에 의해 정책 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나 이해 당사자들은 주의를 기울이지 말아야 되겠다.

모순된 현상은 여기서(현 시점에서) 마감하자.

建議書가 乾議書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

